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순교자 성월 연중 제23주일
제3권 41호(다해) 2010-9-5

[묵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나무채색,
루브르박물관,
프랑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하십니다.
게다가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사랑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미워하고 버리라고 하시니
깨달을 수 없는 이 비장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예상이나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은 불완전하나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니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뒤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것이 아직 남아 있어
예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면
빨리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의 전부가 모두 나의 것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제가 가득 채워지면
제자 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리이다. -框-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아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원영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프래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전승유 시몬, 엄은섭 도로테오, 손태성 알로이시오
특전미사	(생)김석기 스테파노, 케네스 안드레아 헤밀튼, 한혜라, 전지요, 이규호, 성은영, 김태형, 정진욱, 김풍길 바오로 & 제희모니카 가정, 한국의방선교회 김순겸 사도요한 사제 & 후원회가족들
주 일	(연)엄익수 바오로, 조지 가보라, 김인영 베드로, 김종환 야고보, 김길제 안드레아, 최복덕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서인수 요셉, 김경숙 마리아,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낮 미사	(생)홍주희 안나, 김진희 골롬바, ME 수료자들, 김철란 마리아, 김대우 비오 & 심포로사, 한케네스 바오로 & 제임스 베드로, 홍정순 세실리아 & 홍성열 바오로, 홍준호 프란치스코, 유우하례 안나, 양영은 카타리나, 최석원 클레멘스, 황유선 비비안나, 베은주, 최한나, 주진우 스테파노, 이진옥 바울라 & 이지수 가브리엘라, 오세찬 바오로 & 현미 도미니카 가정, 김문수 미카엘 & 용화 가정, 백상위 제대회 창립회원들, 나경희 데보라 & 타가하시 가정, 조영우 스테파노 & 엄지선 레지나 가정, 반영선 도미니카, 남인구 야고보 & 정선 안젤라, 구영애, 최성자 카타리나, 홍석인 세실리아, 배기현 콘스탄틴 사제, 한국의방선교회 김순겸 사도요한 사제 & 후원회 가족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9,13-18

화답송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아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아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저희 낱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독서 필레몬서(Philemon) 9-10.12-17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음 루카(Luke) 14,25-33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6	345
봉헌	내가 살아가는 이유	268
성체	291	280
파견	394	343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생명의 복음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완성에 이르렀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마르 10,45)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정상에 도달하신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로마 5,8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께서는, 생명을 버릴 때 그 생명은 핵심과 의미와 충만함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신다. 여기에 이르면 우리의 묵상은 기도와 감사로 바뀌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촉구로 변한다.(1베도 2,21 참조)

우리도 역시 형제자매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들 실존의 의미와 품위가 지닌 충만한 진리를 구현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주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또 상인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 저희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의 삶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따라서, 성부께 순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관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귀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인간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따르는 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사랑하고 키우는 것을 배우게 해주소서. -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복음과 계명

52). "한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마태 19,16) 예수께서는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마태 19,17)하고 대답하신다. 선생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즉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생명은,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포함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지를 묻는 젊은이에게 예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하고 대답하셨다." (마태 19,18)

하느님의 계명은 결코 그분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 계명은 언제나 인간의 성장과 기쁨을 위한 선물이다. 계명은 그러한 선물로서, 복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측면을 보여주며, 실제로 "복음" 그 자체, 즉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생명의 복음은 하느님의 큰 선물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엄격한 임무이다. (◆계속)